

전북형 늘봄 우수성 재입증

전북교육청, ‘2025 늘봄·방과후학교 우수사례 선정’서 학교 부문 대상
순창초 ‘대상’·고창남초 ‘우수상’ 수상…온종일 교육·돌봄모델 정착

‘전북형 늘봄학교’의 우수성이 다시 한번 빛났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5년 늘봄·방과후학교 우수사례 선정’에서 학교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학교 부문 대상에는 순창초가, 우수상에는 고창남초가 각각 선정됐다. 순창초는 ‘온학교·온마을 연계 맞춤형 통합 늘봄 운영’을 통해 학교·지역·가정이 협력하는 통합 운영 체계를 구축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웹기반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

맞춤형·온종일 돌봄을 운영하고 있다. 이어 고창남초는 ‘늘봄 네트워크를 통한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 구축’을 인정받았다. 전체 교직원으로 구성된 ‘늘봄카페’와 늘봄전담인력으로 구성된 ‘늘봄 드림팀’협의체를 정례화해 프로그램 기획·운영·피드백이 선순환되는 구조를 강화했다. 이같은 성과는 ‘전북형 늘봄학교’가 온종일 교육·돌봄모델로 정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앞서 2025년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한편 ‘전북형 늘봄학교’는 학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후 6시까지 학교 내에서, 이후 오후 8시까지 학교 밖 기관에서 운영하도록 설계해 학부모 98%, 학생 97.6% 등 전국 최고 수준의 만족도를 보였다. 오선화 미래교육과장은 “이번 수상은 현장의 교직원과 늘봄지원실장, 실무사 등 모든 교육구성원이 함께 만든 성과”라며 “앞으로도 모든 아이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전북형 늘봄학교’를 내실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수능 D-1... 수험생 예비소집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2일 전주영성고등학교에서 예비소집이 진행되고 있다.

/장은성 기자

계약업무 전문성 강화 투명·공정성 높인다

전북교육청, ‘계약 백문백답’ 발간·배부
시설공사 적격심사 엑셀 자동화 서식도 제작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계약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12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계약업무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례를 질의·응답으로 구성한 계약필(必)독서 ‘계약 백문백답’을 발간, 도내 모든 교육기관 및 각급 학교에 배부했다. 이 책자는 계약업무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질의, 회신, 유관해석 등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구성된 실무형 사례집으로 △계약법령 △예정가격 및 원가계산 △수익·입찰계약 △낙찰자 결정 △계약체결 △선금 및 대가지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계약업무가 복잡·다양화됨에 따라 계약담당자의 업무 경감 및 지원을 위해 제작된 것으로, 지난해 제작된 ‘계약실무편람’에 이어 일선 계약담당자들의 실무 역량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분청 재무과 계약담당자를 비롯해 교육지원청, 학교 등 실무에 밝

은 14명의 공무원이 행정연구회(더 청렴한 계약ZP+)를 구성해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 여에 걸쳐 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와 함께 입찰 적격심사 과정의 정확성, 공정성, 표준화를 강화하기 위해 시설공사 적격심사 엑셀 자동화 서식도 제작했다. 해당서식은 추정가격 2억 원 미만부터 100억 원 미만 입찰공사에 적용가능한 시스템으로 △복잡한 심사기준 자동 생산 △공사 유형별 평가 자동 반영 △평가점 즉시 산출 △심사결과 보고서 자동 생성 등을 구현해 심사 오류를 최소화하고, 업무소요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됐다. 최선자 재무과장은 “지난해 제작한 계약실무편람에 이어 올해 ‘계약 백문백답’과 ‘시설공사 적격심사 엑셀 자동화 서식’이 계약업무 담당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계약담당자의 업무 역량 향상 및 지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에너지전환·혁신 비전 모색

전주대, 내일 ‘미래에너지솔루션 2025’ 국제심포지엄

전주대학교(총장 류두현)는 오는 14일 스타센터 온누리홀에서 ‘미래에너지솔루션 2025’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RE100 에너지솔루션에 관한 정책 및 국내·외 현황을 주제로 에너지 신기술, 수소경제, 그리고 정책 분야의 에너지전환과 혁신을 위한 비전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과 전북특별자치도 김관영 도지사가 이어 ‘RE100 에너지솔루션 얼라이언스 소개’라는 주제로 김영권 전북테크노파크 에너지산업육성단장의 초청강연이 진행된다. 또 ‘위기에

서 기회로: 에너지 전환과 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오대석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이 첫 기조강연을 펼친다. 이어지는 패널토의에는 RE100 에너지 솔루션 얼라이언스 이해원 의장(전주대학교 산학부총장)은 “이번 심포지엄이 국내외 최신 에너지 정책 및 기술의 정보 교류, 녹색전환 실현, 미래 에너지 산업 발전을 위한 산·학·연 협력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주대학교는 전북특별자치도와 협력해 RE100 산단지정을 위한 노력과 글로벌 에너지 이슈 대응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학생 서비스 만족도 ‘7년 연속 1위’

한국표준협회 서비스 품질지수 평가 10년 째 지방 국립대 1위
모집단위 광역화 등 학생 중심 글로벌대학30 사업 결실 맺어



2025 서비스품질지수 평가 인증 수여식에서 이동현 전북대학교 교학부총장이 수상받고 있다.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7년 연속 ‘2025 서비스품질지수 평가’에서 지방 국립대 가운데 1위에 올랐다. 이번 평가는 한국표준협회가 대학별 1학년을 제외한 재학생을 대상으로 1대 1 개별면접과 온라인 패널 방식으로 진행했다. 서비스 결과 품질, 서비스 상호작용 품질, 서비스 환경 품질, 사회적 가치 등 4개 영역에 8개 세부 지표를 종합 평가했다. 12일 전북대에 따르면 이 중 서비스 결과와 상호작용, 환경 등 대부분 항목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점수를 받았으며, 세부 평가 전 부문에서 80점 이상을 기록했다. 이는 글로벌대학30 사업 추진 성과와 AI 기반의 교육 혁신과 학생 중심 지원정책이 뒷받침된 결과다. 특히 지난 2년간 대규모 정부 지원사업을 통해 8,000억원 이상을 유치하며 혁신 인프라를 대폭 확충했다. ‘글로벌대학30’ 사업 첫해에 선정돼 학생 중심의 다양한 사업의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를 계기로 모집단위를 광역화해 학생 전공 선택권을 강화하고, 복수전공 및 전과 비율을 확대하는 등 학생이 스스로 설계하는 학사 구조를 구축했다. 또 기존 106개 학

과를 46개 모집단위로 통합해 전공 구분 없이 신입생을 선발하고, 모듈 전공제·전공선택제·디지털 역량 인증제 등을 도입해 학생 누구나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추진하는 퍼지컬AI 핵심기술 실증사업 주관기관에 선정, 교내 3,300㎡ 규모의 실증 공간을 마련하고 향후 18만㎡ 규모의 퍼지컬AI 전용 캠퍼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연구·행정 전반에 인공지능(AI)을 도입했다. 200억 원 규모의 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학사·행정 업무 전반을 AI로 효율화하고, 학습관리시스템에는

AI 튜터를 도입해 학생의 학습·진로를 실시간 지원하고 있다. 양오봉 총장의 ‘학생 밀착형 소통’도 학생들에게 큰 만족감을 줬다. 정기적인 ‘소통데이’ 운영과 ‘총장과의 만남’ 등을 통해 학생의 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했다. ‘JBNU 인터내셔널 라운지’, ‘중앙도서관 중도라운지’ 등 복합형 복지·학습공간을 확충해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양 총장은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 없이는 대학의 미래를 보장하기 어려운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대학의 중심은 학생이어야 한다”며 “전북대가 7년 연속 서비스품질지수 평가 1위의 영예를 차지한 것은 대학의 기본 가치를 지키며 미래 변화가 이끌어 온 모든 구성원의 노력의 결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학생 복지와 학습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등록금 부담 완화·장학제도 확충·진로·취업 지원 등 실질적인 학생 서비스 강화를 멈추지 않겠다”며 “오늘도 변화와 혁신의 길 위에서 국가와 지역을 이끌 인재 را 길러내고, 학생의 꿈을 실현하는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 더욱 과감하게 도전하고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은성 기자

“새만금 골든타임은 지금... 전북, 협력·실행으로 응답해야”

김윤태 우석대 대외협력부총장, 새만금 대토론회서 지역 리더십·실행 강조

김윤태 우석대학교 대외협력부총장(사진)이 최근 열린 ‘제5차 새만금 대토론회’에서 지역 리더십과 실행을 강조했다. 김 부총장은 “지금이 새만금 재도약의 골든타임”이라며 “전북특별자치도가 협력과 실행으로 국가 에너지전환의 중심지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남은 SK와 오픈 AI의 데이터센터, 삼성 SDS 컨소시엄의 국



음인지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전국 순회

타운홀 미팅을 앞둔 지금, 전북특별자치도가 먼저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대통령이 새만금을 언급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으면, 그 소중한 시간이 공허한 논쟁으로 끝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부총장은 “각자의 이해관계를 잠시 내려놓고 정부와 기업을 향해 ‘새만금이 국가 에너지전환의 중심이 돼야 한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장은성 기자

재활복지기술, 퍼지컬AI와 XR로 확장

재활복지공학회, 정기학술대회

한국재활복지공학회(회장 권대규, 전북대 교수)가 ‘제19회 정기학술대회’를 통해 AI와 로봇, XR 기술을 결합한 차세대 재활복지 생태계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번 학술대회에서 기조강연을 맡은 정봉근 교수(미국 USC 노년학대학)는 글로벌 AgeTech(고령친화기술) 흐름과 한국의 기술혁신 과제를 제시했다. 정 교수는 “고령사회

일수록 인간 중심의 기술 설계와 공공 복지의 디지털 전환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기술과 복지의 균형 발전을 강조했다. 또한 박찬희 교수(전주대 물리치료학과)는 혼합현실(MR)과 확장현실(XR)을 활용한 재활치료 콘텐츠 개발 사례를 소개했다. 박 교수는 “가상공간에서 환자가 스스로 재활훈련을 수행하도록 돕는 XR 기술은 기존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덕영 교수(경희대 동서의학대학원)는 ‘돌봄로봇의 현황 및 실용화 방안’을 발표하며, 고희자 돌봄 환경에서의 실증과 제도적 기반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정 교수는 “돌봄로봇이 기술적 완성도만으로는 확산되지 않는다”며 “사회적 수용성과 제도적 신뢰가 함께 구축돼야 산업 생태계로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Physical AI 및 빅데이터 활용’, ‘Age-Tech 혁신기술’, ‘스마트 재활’, ‘이동 돌봄로봇 실용화’, ‘보조기기센터 사례발표’ 등 산·학·연·의료기관 간 협력 생태계가 활발히 논의됐다.

/장은성 기자

제9대 전주교대 총장임용

후보자 선거 19일 온라인 투표

전주교육대학교(총장 박병춘)는 오는 19일 치러지는 제9대 총장임용후보자 선거를 온라인 투표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총장임용후보자로 미술교육과 장지성 교수와 초등교육과 박종필 교수가 후보 등록을 마쳤다. 이에 따라 12일 후보자 합동연설회와 공개토론회를 거쳤으며, 19일 투표를 실시한다. 투표 결과에 따라 총장임용후보자 1·2순위가 정해지면 전주교대는 후보자 2명을 교육부에 추천, 이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한편 이번 선거의 투표권자는 교원·직원(조교 포함)·학생으로, 투표 반영 비율은 교원 72%, 직원(조교포함) 17.5%, 학생 10.5%다. 박병춘 총장은 “전주교육대학교를 이끌 새로운 리더를 구성원 모두가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이차전지제조성능평가서’

비전대, 자격증 특별반 운영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우병훈)는 12일 3개 대학 공유·협업 전북이차전지인재양성전문대학원체제 자격증 특별반 2차 - 이차전지제조성능평가서 과정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격증 특별반은 전주비전대, 전주기전대, 군장대가 공동으로 구성한 전북이차전지인재양성전문대학원체제로, 전주기전대학 혁신융합캠퍼스에서 진행됐다. 이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실제 산업문제 해결 역량을 갖춘 창의융합형 기술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됐다. 이를 위해 각 대학 교수진과 학생, 산업체 전문가 등 총 40여명 규모로 운영됐다.

/장은성 기자

‘D-MIX 콘테스트’ 시상식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우병훈)는 지난 11일 비전관 대회의실에서 디지털 창의융합 인재 양성을 위한 ‘D-MIX(Digital creative Mix) 콘테스트’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콘테스트는 AI, VR/AR, 드론영상, 3D프린팅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융합해 창의적 아이디어와 실무역량을 겨루는 경진대회로, ‘2025 VISION EXPO’ 행사와 연계해 진행됐다. 심사 결과, 총 16개 팀이 부문별로 대상·최우수상·우수상·장려상을 차지했다. 3D프린팅 부문에서는 ‘스마트 자율주행 청소로봇’을 제작한 카르페디엄팀(전기공학과 차시은 외 7인)이, 드론영상 부문은 ‘전주 문화 관광’을 주제로 한 전주관광객팀(지적토목학과 이종혁 외 2인), VR/AR 부문은 ‘2036년 전주 올림픽 경기장 VR 콘텐츠’를 구현한 지도리팀(지적토목학과 이양수 외 3인)이, AI 부문은 ‘AI 다문화 유학생 마인드 케어 시스템’을 개발한 Pioneer팀(국제교류원/컴퓨터정보과 진코나연 외 4인)이 대상을 받았다.

/장은성 기자